

C1001 1형안정형(VUL)

※ 공지 사항

1.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1형안정형(VUL)의 자산운용회사인 ABL생명보험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국민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ABL생명보험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위탁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위탁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3. 자산은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의하여 투자일임 운용됩니다.
4. 각종 보고서 확인: ABL생명보험 <http://www.abllife.co.kr/> 02-3787-7000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1. 펀드의 개요

▶ 기본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펀드명칭	1형안정형(VUL)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46008	고난도펀드 여부	해당하지 않음
펀드의 종류	변액보험 변액보험, 개방형, 추가형, 일반형	최초설정일	2004.10.04
운용기간	2025.01.01 ~ 2025.03.31	존속기간	추가형으로 별도의 존속기간 없음
자산운용회사	ABL생명보험	펀드재산보관회사	국민은행
판매회사	ABL생명보험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상품의 특징	주로 CD, 단기 국공채, 특수채에 투자함으로써 적정수준의 자본이득과 이자 수익을 달성함에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은 초과수익을 위한 여러 요인들(듀레이션, 수익률선, 신용, 고평가/저평가 분석 등)을 활용하여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 재산 현황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백만환,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1형안정형(VUL)	자산 총액 (A)	6,339	6,279	-0.96
	부채 총액 (B)	5	5	-4.80
	순자산총액 (C=A-B)	6,334	6,274	-0.95
	발행 수익증권 총 수 (D)	3,852	3,787	-1.67
	기준가격 (E=C/D × 1000)	1,644.46	1,656.50	0.73

※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에 가입(예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액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운용경과

2025년 1분기 국내 채권 시장은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1월 국내 채권 시장은 연초 자금 집행에 따른 매수 유입과 원/달러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1월 금동위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되었으나, 경기 하방 리스크를 강조하는 등 완화적 스탠스가 확인되었습니다. 월말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및 유럽연합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1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며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2월 금동위는 시장 예상보다 더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이며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였습니다. 3월에는 대외 금리 상승과 미국 경기지표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며 대외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었고, 이에 연동되어 국내 금리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며 월 말에는 상승분 일부를 되돌리며 마감하였습니다. 3월 말 기준,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전 분기 말 대비 10.4bp 하락한 2.767%로 마감하였습니다.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2025년 2분기 국내 채권 시장은 국내 경기 및 물가 둔화 모멘텀이 지속되는 국면 속에서, 연내 금리 인하 횟수 및 시기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확대되며 완만한 강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OECD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5%,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9%로 전망함에 따라,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5월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금리 인하 2회가 기본 시나리오이지만, 관세 정책 등으로 실물 경제 지표가 추가로 둔화될 경우, 3회 인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가운데, 공급 측 충격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대외 금리 상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정 이수에 따른 국제 수급 부담 역시 장기를 금리에 부담 요소입니다. 그러나 2025년 법인세수의 호조와 WGBI 편입을 감안할 때, 국제 발행이 20조 원 수준 이내로 결정된다면 공급 부담이 제한되어 재로 소멸에 따른 강세 전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기간(누적)수익률

(단위 :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1형안정형(VUL)	0.73	1.49	2.29	3.12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 : %)

구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1형안정형(VUL)	3.12	6.62	8.91	10.05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손익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전기	-	44	-	-	-	-	-	-	-	9	-4	49
당기	-	41	-	-	-	-	-	-	-	9	-4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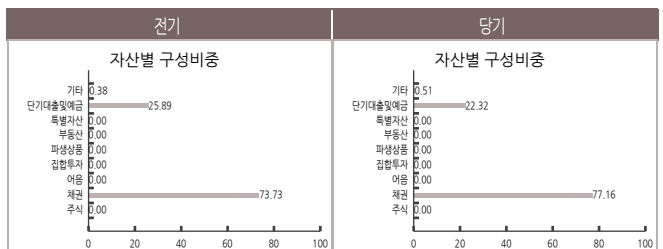
3. 자산현황

▶ 자산구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0	4,845	0	0	0	0	0	0	0	1,402	32	6,279
(1.00)	(0.00)	(77.1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2.32)	(0.51)	(100.00)
합 계	0	4,845	0	0	0	0	0	0	0	1,402	32	6,279

※ () : 구성비중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

	구분	종목명	비중	구분	종목명	비중	
1	채권	통안03340-2601-02	24.22	6	채권	토지주택채권(용지)22-11	6.94
2	채권	신금22신이0300-0530-2	19.18	7	단기상품	정기예금(주신한은행)정기예금240325	4.87
3	단기상품	은대(국민은행)	17.46	8	채권	토지주택채권(용지)23-01	3.45
4	채권	한국가스공사451	12.79	9	채권	토지주택채권(용지)22-05	2.53
5	채권	한국전력1267	8.05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채권

(단위 : 백만원, %)

종목명	액면가액	평가액	발행국가	통화	발행일	상환일	보통기관	신용등급	비중
통안03340-2601-02	1,500	1,521	대한민국	KRW	2024-01-02	2026-01-02		N/A	24.22
신금22신이0300-0530-2	1,200	1,204	대한민국	KRW	2022-05-30	2025-05-30		AAA	19.18
한국가스공사451	800	803	대한민국	KRW	2023-06-22	2025-06-22		AAA	12.79
한국전력1267	500	505	대한민국	KRW	2022-08-26	2025-08-26		AAA	8.05
토지주택채권(용지)22-11	400	436	대한민국	KRW	2022-11-30	2025-11-30		AAA	6.94
토지주택채권(용지)23-01	200	217	대한민국	KRW	2023-01-31	2026-01-31		AAA	3.45
토지주택채권(용지)22-05	150	159	대한민국	KRW	2022-05-31	2025-05-31		AAA	2.53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 주,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예금	국민은행	2005-02-10	1,096	2.30	-	대한민국	KRW
정기예금	신한은행	2024-09-25	305	3.55	2025-06-25	대한민국	KRW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 개, 백만원)

성명	직위	운용중인 펀드 현황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최미영	부서장	76	2,184,570	2119000125
김태현	차장	76	2,184,570	2119000109
윤유라	과장	76	2,184,570	2121001284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현회 전자공시시스템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간	운용전문인력
2019.01.25 ~ 현재	최미영
2019.01.24 ~ 현재	김태현
2021.07.16 ~ 현재	윤유라

5.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사	1	0.01	1	0.01
판매회사	3	0.05	3	0.05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	0	-
일반사무관리회사	0	-	0	-
보수합계	4	0.07	4	0.07
기타비용	0	-	0	-
매매 중개수수료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0	0	-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	-
	합계	0	0	-
증권거래세	0	-	0	-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 중개수수료는 제외합니다.

※ 성과보수내역: 해당 없음

※ 발행분담금내역: 해당 없음

※ ESG관련내역: 해당 없음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연환산, %)

	총보수 : 비용비율(A)	매매 : 중개수수료 비율(B)	합계(A+B)
전기	0.2694	0	0.2694
당기	0.2694	0	0.2694

※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 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 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 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6. 유동성 위험 등 주요 위험현황 및 관리방안

▶ 유동성 위험 등 운용관련 주요 위험 현황

가. 운용전략 특성에 따른 잠재 위험요인 등

- 시장위험 및 개별증권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 주식,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개별증권의 가격 변동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정치 경제상황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동성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증권은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매 연기나 거래비용 증가 등으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위험 관리 방안

가. 펀드의 위험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방안 등

- 신탁약관 및 법규에 따라 투자한도 및 모든 법적 규제 등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관리 되고 있으며, 내부 투자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투자 전략의 점검, 성과 측정과 위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 재간접펀드 등 위험관리조치 내역 및 운용사의 통제권한과 수단 등

해당사항 없음

▶ 주요 비상대응계획

- 재해 등의 위기상황 발생 시 리스크 관리, 투자 자산 모니터링 등 회사의 주요 기능이 계속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연 속성계획(BCP)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형안정형(VUL)' 의 경우 펀드의 운용규모의 법적 기준 소규모상태(50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운용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단서에 의거하여 향후 불가피하게 임의해지를 통해 정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 223조 제3호 및 제4호)